

바리데기와 썩의 윤리

조현설*

- I. <바리데기>를 보는 시각
- II. 가족 갈등과 무의 윤리
- III. 종교 갈등과 무의 윤리
- IV. 무의 윤리의 시각에서 본 함홍본 <바리데기>의 위상
- V. 맺음말

<국문초록>

한국 무속신화를 대표하는 <바리데기>는 무의 윤리를 화두로 삼고 있는 텍스트이다. 함홍본에는 무불유(巫佛儒)의 윤리가 혼효되어 있지만 그 심층에 놓여 있는 것은 무의 윤리이다. 다른 지역의 <바리데기>가 겉으로는 유교 윤리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불교 윤리를 말하고 있다면 함홍본은 표층에서는 유교 윤리를 드러내지만 심층에서는 무교의 윤리를 강조한다. 함홍본의 바리데기 수왕이의 구약여행을 추동하는 주동인은 무의 점괘이고, 점괘는 신의 명령이므로 이를 따르는 것이 무교가 추구하는 우주와의 조화를 이룩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런 조화의 윤리는 함홍본의 결말 부분에서 다시 부각된다. 모친 덕주아 부인의 회생 이후 어머니와 여섯 딸의 대립은 서로를 부정하는 파국에 도달한다. 그러나 기아에서 비롯된 어머니와 막내딸의 최초의 대립은 바리데기의 구약여정을 통해 화해에 도달한다. 그러나 파국이든 화해든, 결과적으로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죽음에 이룸으로써, 죽음이야말로 피할 수 없는 존재의 본질임을 드러낸다. 함홍본 <바리데기>에는 '오기탈을 받고 오기탈

*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

을 거두어 달라', 곧 '죽음이라는 탈'을 해결해 달라고 청하는 망목굿을 통해 무속이 추구하는 삶과 죽음의 조화가 회복된다는 윤리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함홍본 <바리데기>의 심층에서 작동하고 있는 무의 윤리는 반불교적, 반유교적 태도를 조성한다. 그 결과 함홍본은 부정적인 서인대사의 형상을 통해 중생을 호도하는 불교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열녀충신이 나는 것이 오히려 집안에는 좋지 않다는 역설적 언술을 통해 유교 윤리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이런 함홍본의 유불에 대한 태도는 불교 윤리를 내면화하고, 유교 윤리를 앞세우는 서울경기본을 비롯한 다른 지역본과 크게 다르다. 이 차이는 함홍본의 윤리가 유불의 윤리와 대립 내지 경쟁관계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동시에 함홍본이 유불의 윤리와 화해하고 있는 다른 지역본에 비해 더 오래된 유형임을 뜻한다.

핵심어: 바리데기, 무의 윤리, 불교윤리, 유교윤리, 함홍본, 조화, 오기탈

1. <바리데기>를 보는 시각

필자는 이전에 관북지역 무속신화가 지닌 특이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특이성의 중심에 불교가 놓여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¹⁾ 특히 함홍과 그 인근 지역인 흥원 출신 무녀가 구술한 <바리데기>에 나타난 불교적 요소를 근거로 불교에 대한 이중적 태도, 즉 불교의 내면화 양상과 불교에 대한 배타적 양상이 공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북지역 구연본이 <바리데기>의 초기 형태라는 가설을 제시한 바 있다. 근래 이 가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보완의 키워드는 '무의 윤리'이다.

무의 현상적 비윤리성과 달리 무의 담론은 윤리적이다. 주지하듯이 무의 의례인 굿은 세계의 조화를 그 원리이자 본질로 삼는다. 이 굿의 원리가 해

1) 조현설, 『관북지역 본 <바리데기>의 유형적 특이성과 불교의 관계』, 『한국구비문학회 2010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구비문학회, 2010.

원과 치유라는 개인윤리, 공동체의 변영이라는 사회윤리 등²⁾의 국면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필자는 이 양상을, 바리테기 신화를 포함한 한국과 만주 지역 무속신화의 분석을 통해 여신들의 사회적 행위에 보이는 ‘순수증여’의 원리라는 관점을 통해 재론한 바 있다.³⁾ 여기서 순수증여란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이라는 윤리적 실천에 붙인 이름이었다.

그런데 <바리테기>에 나타나는 ‘무의 윤리’가 단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오해하면 <바리테기>가 ‘유교적 윤리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무형의 사회교육 텍스트’⁴⁾라고 읽는 오류를 낳는다. <바리테기>에 유교적 윤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유교윤리’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형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는 텍스트의 차이를 무시한 비전문가들의 전형적인 <바리테기> 이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전문 연구자의 경우에도 차이는 종종 무시된다. “다양한 효행설화가 바리공주에 수용되어서 바리공주의 후반부가 성립될 수 있다. 특히 효녀자기희생형 설화는 바리공주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바리공주가 설화의 모티프를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⁵⁾라는 진술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바리공주의 행위를 ‘효행’으로 단일화하는 경향이다.

<바리테기>에 표현되어 있는 무의 윤리가 단일하지 않다고 했을 때 그것은 두 가지 차원을 지닌다. 하나는 <바리테기> 유형들 사이에 윤리의 차이가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간의 연구사에서 이 문제는 크게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새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하나는 차이를 지닌 채 <바리테기>에 드러난 윤리가 불교 또는 유교의 윤리와 같은가 다른가 하는 문제이다. 이 역시 기간의 논의에서는 이들 종교의 윤리를 무교가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이해해 왔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시각이다. 오히려 이들 종교의 윤리와 차별화하려는 전략이 <바리테기>의 무의 윤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2) 최문기, 『한국 무속신앙의 실천윤리적 조명』, 『윤리연구』 제74집, 한국윤리학회, 2009, 20면.

3) 조현실, 『동아시아 신화에 나타난 여신상조원리의 지속과 그 의미-만주·한국 신화의 비교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31집, 한국구비문학회, 2010.

4) 김봉석, 『바리테기 신화 읽기의 교육과정적 함의: 효(孝)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9권 4호, 한국교육과정학회, 2011.

5) 최운식, 『심청전연구』, 집문당, 1982.

이런 입장을 개진함에 있어 필자가 지렛대로 삼고자 하는 연구가 있다. <바리데기> 연구의 선편을 잡았던 김태곤의 『황천무가연구』가 그것이다. 그는 황천무가, 곧 <바리데기>의 ‘사상’을 분석하면서 “黃泉巫歌에 나타나는 地獄形態는 北方 傳來의 原始宇宙觀에 의한 下界觀이 一旦 佛敎를 거쳐 轉入된 것”⁶⁾이고, “黃泉巫歌에 나타난 崇先觀은 어버이에 對한 在來의 人倫性 위에 敍上한 社會的 環境에 따르는 善事父母 觀念이 添加된 것”⁷⁾이라고 보았다. 요컨대 <바리데기>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저승행이 펼쳐지는 지옥과 저승행의 목적인 효행이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두 사상의 영향 이전에 이미 원시사유 안에 유사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윤리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자면 <바리데기>에는 불교·유교 윤리의 영향이 있지만 두 윤리에 의해 <바리데기>의 윤리가 비로소 형성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김태곤은 무속의 윤리가 두 윤리에 의해 완전히 대체되었는지 혹은 공존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달리 상론하고 있지 않지만 필자는 김태곤이 상론하지 않았던 지점에서 <바리데기>에 표현된 윤리에 대한 연구는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 필자가 그 의의를 특기한 바 있는⁸⁾ 함흥·홍원 지역본 <바리데기>가 있다.

II. 가족 갈등과 무의 윤리

<바리데기>는 가족 서사다. <바리데기>가 제기하는 가족의 문제적 상황은 아들 낳기[繼後]에 대한 집착이고, 이를 초래한 가부장제이다. <바리데기>는 이 문제적 상황을 가부장의 불치병과 죽음이라는 징후로 표현한다. 이 부조화의 상황이 바리데기의 저승행이라는 윤리적 실천을 통해 조화롭게 조정된다. 가부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질병은 치유되고, 서울경기본의 경우 친손봉사는 외손봉사로 조정된다. 무교의 원리인 조화가 이런 치

6) 金泰坤, 『黃泉巫歌研究』, 創又社, 1966, 114면.

7) 金泰坤, 위의 책, 117~118면.

8) 조현설, 앞의 발표문(2010) 참조.

유와 조정 과정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무교 원리가 실현 양태인 바리테기의 저승행은, 서론의 문제제기처럼 그간 주로 ‘효행의 윤리’로 호명되어 왔고, 이 효행은 유교의 산물로 이해되어 왔다. 예컨대 이용식의 “바리공주의 효행담은 전반적으로 유교적 효(孝) 사상을 반영한 것”라는 견해가 그렇다. 그런데 그는 이어서 “이야기에는 구석구석 불교적 내세관이 숨겨져 있다.”⁹⁾라고 하여 유교와 불교의 영향이 별개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불교는 저승관과 관련이 있고 유교는 효행 사상과 관련이 있다는 이원적 시각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효 윤리는 불교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바리테기>의 심층에 놓여 있는 효 윤리는 불교적인 것일 수 있다.

주지하듯이 불교는 한문으로 번역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유가적 효 윤리와 충돌했고, 그 결과 불교적 효행 담론을 새로 만들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당대(唐代)에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우란분경(盂蘭盆經)』·『목련경(目蓮經)』과 같은 위경(僞經)이 제작되어 널리 유행했고, 고려·조선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바 있다.

그런데 이 위경들이 말하는 효의 윤리는 ‘모성중심적’이다. 『부모은중경』이 거론하고 있는 십대은(十大恩), 곧 잉태하여 지켜주신 은혜[懷胎守護恩]·해산의 고통을 받으신 은혜[臨產受苦恩]·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으신 은혜[生子忘憂恩]·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을 뱉어 먹이신 은혜[咽苦吐甘恩]·진자리 마른자리 가려 눕히신 은혜[推乾就濕恩]·젖을 먹여 기르신 은혜[乳哺養育恩]·끝없이 씻겨 주신 은혜[洗濯不盡恩]·은혜자식을 위해 나쁜 일까지 하시는 은혜[爲造惡業恩]·멀리 나간 자식을 염려하는 은혜[遠行憶念恩]·끝까지 애처롭게 여기시는 은혜[究竟憐愍恩]는 대부분 어머니와 관련된 것이다. 이는 유교의 『효경(孝經)』이 말하는 부성중심적·가부장적 윤리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바리테기>에 드러난 효 윤리는 이중적이다. 표층적으로 보면 그것은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이다. 계후에 필요한 아들에 집착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 아버지를 위해 자식이 사지(死地)로 구약여행을

9) 이용식, 『서사무가 <바리공주>에 투영된 불교적 세계관』, 『동양음악』 제28집, 서울대동양음악연구소, 2006, 102면.

떠나기 때문이다. 이는 『삼강행실도』에 그려진 효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구술 텍스트에 숨어 있는 심층의 양상은 그렇지 않다. 동해안 지역본 <바리데기>가 딸 일곱을 낳을 때까지 반복하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에 대한 묘사는 『부모은중경』이 말하는 어머니의 고통과 다르지 않다. 고통에 참례한 여성 단골들의 강력한 공명을 불러일으키는 이 ‘반복’은 <바리데기>를 모성적, 나아가 여성적 텍스트로 만든다.¹⁰⁾

<바리데기>의 효 윤리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언술은 서울경기본에 나타난다. “국가에 은혜와 신세는 안졌지만은 어마마마 배안에 열 달 들어 잇는 공으로 소녀 가오리다.”(배경재 본)¹¹⁾ 버려졌다 부왕의 사자를 따라 입궁한 바리공주가 언니들이 거부한 서천서역국행에 나서며 천명한 말이다. ‘국가의 은혜와 신세를 안 졌다’라는 말은 바로 ‘아버지’ 대왕마마의 은혜를 입은 적이 없다는 말이다. 이는 가부장에 대한 도전적인 언사이고, <바리데기>의 효 윤리가 어머니에 대한 효, 나아가 불교적인 효 윤리에 가깝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바리데기> 유형 전체를 보면 양자의 관련성, 곧 불교의 심층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바리공주의 최초의 저승행은 앞서 거론한대로 ‘보은’의 성격이 강하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기는 했지만 바리공주가 어머니의 회태수호은(懷胎守護恩)과 임신수고은(臨産受苦恩)을 거론한 데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주로 서울경기본에 나타나는 2차 저승행은 성격이 다르다. 보모를 ‘한날한시에 회춘케 한’ 바리공주는 “네죄가 아니라 내죄로다, 너를 국을 받을 줄야? 사대문에 드는 천을 줄야?”¹²⁾는 부왕의 치사에 대해 ‘만신의 인위왕’이 되겠다고 대답한다. 이는 망자의 고통스러운 저승길을 인도하는 저승의 신이 되겠다는 선언, 동시에 이승에서 그런 직능을 수행하는 무당의 조상신이 되겠다는 선언이다. 1차 저승행이 어머니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일종의 증여 행위에 가까웠다면 2차 저승행은 일체의 보답을 바라

10) 강진옥은 동해안 지역 김복순 구연본을 분석하여 이 지역 <바리데기>가 ‘여성의 이야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변이양상과 여성적 경험의 재현-동해안 지역 김복순 구연본을 중심으로』(『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9집, 한국고전여성학회, 2004)를 참조할 것.

11) 赤松智城·秋葉隆, 『朝鮮巫俗の研究』(上), 大阪屋號書店, 1937; 서대석·박경신 역주, 『서사무가 1』,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6, 239면 재인용.

12) 서대석 외, 위의 책, 247면에서 재인용.

지 않는 증여, 다시 말해 순수증여의 성격이 강하다.¹³⁾ 불교 언어로 바꾸면 보살행이다. 사실 바리테기의 ‘만신의 인위왕’ 되기는 이런 선택과 실천을 통해 이룩된 것이다.

서울경기본 <바리테기>에 보이는 보살행의 윤리는 무교가 불교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무교가 승교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교의 영향을 받아 이룩한 윤리적 극점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선희궁제’¹⁴⁾ <바리공주>라는 유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왕실과 같은 상층여성들의 <바리테기> 서사에 대한 기대가 상당한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함흥본 <바리테기>¹⁵⁾에 보이는 효의 윤리는 아주 다른 얼굴을 지니고 있다. 함흥본에서는 막내 바리테기(수왕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수차랑 선비가 승천해버리기 때문에 이후 서사는 어머니 덕주아 부인과 딸들 중심으로 전개된다. 다시 말하면 함흥본은 “여성성이 강한 신화”¹⁶⁾이고 모녀 중심의 서사이다.¹⁷⁾ 그렇다면 함흥본도 다른 지역본과 마찬가지로 모성중심적 효, 나아가 불교적 효의 윤리를 추구하고 있는 텍스트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함흥본은 전혀 다른 국면의 윤리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귀환한 바리테기가 병에 걸린 어머니와 대면했을 때 바리테기는 “어느 딸이 효자질을 하겠는가 불려서 수품이나 받아 보오.”라고 제안한다. 함흥

13) 증여와 순수증여의 개념과 관계에 대해서는 나카자와 신이치의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김옥희 옮김, 동아시아, 2004)를 참조할 것.

14) 이에 대한 설명은 홍태환,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형성과 전개』(『구비문학연구』 제4집, 한국구비문학회, 1997), 421~423면 참조.

15) 현재 관북지역에서 전승되던 <바리테기> 무가는 함흥 출신 이교분이 구연한 <칠공주(오기풀이)>, 홍원 출신 지금섬이 구연한 <오기풀이>가 채록되어 있다.(자료 상황에 대해 자세한 것은 윤준섭, 앞의 논문, 참조.) 이를 지칭하는 용어로 ‘관북지방무가’ ‘함경도 망목굿’ 등이 사용된 바 있으나 본고에서는 함흥본 <바리테기>로 통칭하기로 한다. 함흥과 홍원을 합쳐 ‘함흥본’이라고 할 수도 있었으나 함흥이 지닌 지역적 대표성(중심성)을 고려했다.

16) 윤준섭, 앞의 논문, 61면.

17) 함흥본의 ‘여성성’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신연우는 이를 ‘과도한 여성성’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질병을 과도한 여성성을 부정한 바리테기가 치유(어머니 살리기)했다고 보았다.(『함흥본 <바리테기>의 죽음의 이해』, 『구비문학연구』 제48집, 한국구비문학회, 2018) 딸 일곱인 상황을 여성성의 과잉 상태로, 바리가 옥황에서 아들 열둘을 낳은 것을 과도한 여성성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해석했는데 이는 그간의 <바리테기> 연구사를 부정하는, ‘과잉해석’이다. <바리테기>는 여성성의 과잉을 여성이 거부하고 조절하는 신화 텍스트가 아니라 과도한 남성성에 대한 반성을 촉구함으로써 일방의 과잉을 조절하려는 여성(주)적 텍스트라고 생각한다.

본도 현실의 ‘효행’ 담론을 의식하고 있다. 나아가 이 ‘수품받기’의 중국에 있는 것은 효행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바리데기의 승리이다. 죽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어머니의 물음에 언니들은 끔찍한 대답을 한다. 썩은 새끼로 죽은 어미의 목을 매서 가시밭에서 끌고 다니다가 가시나무에 올려놓고 불을 놓겠다, 다시 말해 화장을 하겠다고 첫째·둘째 딸은 대답한다. 셋째·넷째는 언니들하고 똑같이 끌고 다니다가 가시나무에 걸어 까마귀가 눈알을 빼먹게 하겠다고 대답한다. 일종의 조장(鳥葬) 혹은 풍장(風葬)을 하겠다는 것이다. 다섯째·여섯째도 끌고 다니다가 비탈진 산자락 밑에 묻겠다고 대답한다. 언덕 위 양지바른 곳이 아니라 무덤을 써서는 안 될 곳에 매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리데기는 유교적 예법을 거론하며 정성스레 상례를 치르겠다고 대답한다.¹⁸⁾ 이 대목에는 유교적 윤리가 두드러진다.

그런데 정작 핵심적인 대목인 서천서역국행에서는 유교의 윤리를 벗어난다. 함홍본은 저승행을 ‘어머니의 은혜에 대한 보은’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불교 윤리를 수용하거나 의식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왜 가는가? 이유는 명확하다. 점괘가 그러해서 간다.

어석국 삼무당이 용하다구그래 점치러 가니, “서천서역국에 가 약수물을 질러다가 좌우로 댁이구 좌우로 셋쳐야 병이 낫는다.” 집당에 돌아와서 은다발에 놋동이 받치고 나서든다. (노래) “내 어마이 내 어머이. 내 갔다 올 때까지 죽지 마오. 죽지 마오.” 은다발에 놋동이 받치 이구, 청계산 아홉 모로로 나루 간다.(이교본)¹⁹⁾

용한 무당의 점괘에서 알 수 있듯이 서역행의 동기로 더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은 무의 윤리이다. 무의 윤리는 점괘를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함홍본의 바리데기 수왕이가 저승여행을 떠나는 것, 자신을 죽음의 지경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점사를 따른 것이다. 무당의 점사를 추수한다는

18) “나는 어머니 업스리면, 이를 입관예법(入棺禮法)도, 삼일 건자예법을, 사일 성복예법을, 오일 성황제법을 들일이 백일이 시다. 초하루보름 삭망지법을, 이태 소향예, 삼년 대타상, 오망무 대망무 드리겠소.”(지금섬본)

19) 윤준섭, 앞의 논문, 120~121면.

것은 신의 명에 순응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함흥본 <바리테기>에 관철되고 있는 ‘무의 윤리’이다, 함흥본의 바리테기는 유교의 윤리, 불교의 윤리가 아니라 무의 윤리에 따라 구약여행을 떠난다. 점괘를 따르는 것, 신의 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교의 핵심원리인 ‘우주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서울경기본을 비롯한 다른 지역 <바리테기>가 표층에 유교적 윤리를 드러내면서 심층으로는 불교적 윤리를 말하고 있다면 함흥지역본은 겉으로는 유교적 윤리를 언급하면서 속으로는 무교의 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함흥본의 이런 성격을 두고 서사적 완결성의 결여되었다거나 불합리한 서사 전개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보다는 함흥본의 독자성, 고유성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평가일 것이다.

III. 종교 갈등과 무의 윤리

<바리테기>에는 일반적으로 유불무의 갈등이 잘 노출되지 않는다. 포용성을 장기로 삼는 무교의 특징이 <바리테기>에는 잘 드러나 있다. 그래서 “남아를 선호하는 유교적 사고와 더불어 부처와 석가여래의 공덕이라는 불교적 기원이 혼합되어 바리공주를 잉태하게 되는 것”²⁰⁾이라는 시각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바리테기>의 다양한 국면을 가리는 근시안적 시각이다. 함흥본 <바리테기>의 이질성이 그 점을 잘 보여준다.

무불의 갈등과 관련하여 함흥본 <바리테기>에는 인상적인 장면이 둘 있다. 하나는 수차랑선비 부부가 무당을 만나는 초반부의 장면이고, 다른 하나는 서인대사가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이다. 초반부와 종반부의 두 장면은 서로 호응하면서 무불의 갈등을 극적으로 표출하는 동시에 불교가 아닌 무의 윤리를 강조한다.

수차랑·덕주아 부부는 서른다섯이 되어도 자식이 생기지 않자 하인을 앞세우고 운명을 점치러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 간다. 그런데 무당과 단골이 만나는 첫 장면에서 갈등 상황이 발생한다. 이 장면을 더 자세하게 구연

20) 이용식, 앞의 논문, 110면.

하고 있는 지금섬본은 이렇게 되어 있다.

천지국 천지 무당 지리부 지리 무당 어석국 삼 무당이 묘하다니 짐 치러 가는 구나. 몸 하인 상 하인 앞세우고 점바치 집에 찾아 갔오. 점바치라고 보니 누드기 세 이비치<三葉>이 칠폰이치 걸머 미고 외유월<五六月>에느 불개미 집도 다치치 못하는데 보리짚으로 엽계를 예는 구나. 저 거 속이 무슨 국이 있거나 재간이 있겠느냐. (노래)몸 하인님아 상 하인님아 말 머리르 돌가 시워라. 저 거 속이 무슨국이 있겠니 무슨 재간이 있겠느냐? (말)아 그 소리 보람짚이 날느는지 구름짚이 핑겠는지 점바치 그 말을 듣고 “허허 그래도 너 사지판단<四柱判斷> 나뻑이 내 줄 사람이 없다.” 그 말이 보람짚이 날느는지 구름짚이 핑겠는지 “몸 하인님아 상 하인님아 말 머리 돌리 시워라.” “선상님 선상님 사지 판단을 내 주시오.” “누드기 세 입비치 이 칠폰에치 걸머 메고 외유월 보리짚으로 엽계를 메는 그 속에 무슨 국이 있거나 재간이 있겠오.” “잘 못했오. 사지 판단을 내리주오.” 겨우 벌어 들어내니 사지 판단을 내는 구나.(문장부호는 필자)²¹⁾

갈등의 요지는 고객의 무당에 대한 불신이다. ‘묘하다’는 ‘삼무당’을 찾아갔는데 외양이 너무 초라했다. 누더기 옷을 입은 것도 그렇고, 한여름에 보리짚으로 이엉을 엮는 것도 비상식적이다. 단골의 입장에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 장면은 무당의 외양으로 무당의 능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무의 진면목을 봐야 한다는 무(巫)의 주장을 담고 있다. 이엉을 엮고 있으면서도 무당은 고객의 마음을 이미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무당은 ‘너의 사주를 봐줄 무당은 나밖에 없다’고 선언한다. 수차랑 선비는 경술했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무당의 ‘사주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신뢰성 여부를 둘러싼 무당과 단골의 갈등이 이렇게 봉합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무당은 ‘백일기도를 하여 첫 아들을 낳으면 내리 아홉 아들을 낳아 나라에 이름을 떨치고, 첫 딸을 낳으면 내리 일곱 딸을 낳아 구족이 망하리라’는 괘사(卦辭)를 내놓는다. 수차랑 부부가 이 점괘를 신뢰했다면 첫 딸을 낳고나서 더 이상 자식을 낳지 말아야 한다. 멸문지화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부부는 점괘를 무시한다. 서사 전개 과정에서 점사(占辭)에 대한 어떤 자각도 구술되지 않는다. 첫딸을 낳고 세 해

21) 任哲宰·張壽根, 『關北地方巫歌』, 無形文化財調査報告書 第13號, 1965, 98~99면.

쫓이 지난 뒤 바로 태기가 생겨 둘째 딸을 낳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말하자면 서사는 ‘구족(九族)이 망하리라’는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 달려간다.

패사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함흥본은 논리적 완결성을 가지고 있다. 그간 함흥본은 “구성에 있어 논리적 인과가 파괴”²²⁾되어 있다고 지적되어 왔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논리적 인과가 파괴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윤준섭은 이를 ‘액자구조’²³⁾라는 형식적 특성으로 설명하려고 했다. 초반부의 덕주아 부인의 출산과 중반부의 모녀의 죽음이 외부의 액자를 이루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바리데기의 구약여행과 바리데기와 모친의 갑작스런 죽음이 지닌 서사적 불일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해석학적 고육지계였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점사의 맥락, 다시 말해 무의 윤리라는 맥락에서 보면 액자구조를 설정하지 않아도 합리적 설명이 가능하다. 함흥본 <바리데기>를 제어하고 있는 것은 바로 ‘탈’의 논리, 다시 말해 죽음의 윤리이기 때문이다.

함흥본 <바리데기>에는 바리데기의 서사가 종결된 뒤 무당의 긴 창이 이어진다. “탈이로다 탈이로다 / 인생탈도 탈이로다 / 전생탈도 탈이로다 / 인생탈을 걷어가구 / 전생탈도 탈이로다 / 명도탈도 탈이로다.” 무당의 점괘를 무시하여 일찍이 무대에서 퇴장한 아버지를 제외한, 지상의 ‘가족몰살’이라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탈이 났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무당의 점괘를 거부한 것 자체가 ‘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죽음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탈은 세계의 조화가 깨져서 생긴 것이다. 부조화 자체가 탈이다. 이 탈을 거둬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옥황(저승)²⁴⁾에 있다는 것이 함흥본의 논리이다. 탈을 옥황에서 거둬가야 조화가 다시 회복된다. 그래서 바리데기 신화를

22) 서대석, 앞의 책, 210면.

23) 윤준섭, 앞의 논문, 30~34면.

24) 함흥본의 저승에 해당하는 공간은 옥황(하늘)이다. 함흥본을 제외한 다른 지역본의 저승, 곧 서천서역국은 불교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평적 공간인식의 결과지만 함흥본의 저승은 천상에 있는 공간으로 수직적 공간 인식의 소산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공간에는 수왕이의 두 번째 아버지인 용왕이 거주한다. 이로 미뤄보면 함흥본은 바다를 죽음의 공간, 더 나아가 생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인식 속에서 옥황은 바다라는 이중적 공간성이 투사된 공간이다. 이는 두 공간을 매개하는 공간이 ‘용늪’이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는 바다를 죽음과 풍요를 함께 가져다주는 곳으로 인식하는 해양적 세계관이 투사된 함흥본의 독특한 공간상이라 할 만하다.

다 구연한 뒤에 “옥황에 올라가 아들 열둘을 낳고 열두시왕 매겨 농구 내려 왔으니 거기서 오기탈을 받고 탈을 거두소서.”²⁵⁾라고 무당이 기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열두시왕, 곧 열시왕[十大王]이라는 불교적 요소가 들어와 있지만 그것은 외피일 뿐이다. 이는 육도윤회(六道輪廻)의 사상과 무관하다. 필자는 이를 함흥본 <바리데기>가 보여주는 냉정한 현실주의라고 생각한다. 함흥본은 이승에서의 행복한 결말을 거부하는 구술 텍스트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런 함흥본의 독특한 무의 윤리는 불교 윤리의 영향을 받아 텍스트가 변형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바리데기> 내부에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서울 배경재본을 보면 모란박사, 강림박사라 불리는 무당이 “폐길년에 길례를 하시면은 칠공주를 보옵시고 대개년에 길례를 하시면, 삼동궁을 보시리이다.”라는 패사를 아뢰지만 대왕은 그것을 무시하고 ‘폐길년’에 급히 세자의 혼례를 치른다. 이 문복 장면은 세자가 왕위를 이은 뒤 왕비가 임신을 하자 다시 반복된다. 시녀들이 문복 결과를 아뢰자 왕은 “제 무엇을 안다느냐”라면서 또다시 무시한다.

이처럼 문복 결과를 불신하는 장면이 반복되는 것은 <바리데기>에서 이 대목이 대단히 긴요하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무당의 말대로, 다시 말해 신의 뜻을 잘 따르면 뜻을 이룰 수 있지만 불신하고 따르지 않으면 불행이 닥친다는 논리이다. 이는 함흥본과 다른 지역본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증거이면서 불교와 유교의 윤리를 수용하여 무교의 윤리를 승화시키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는 무교만의 윤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좌증이다.

이런 강력한 무의 윤리가 텍스트를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적인 두 번째 장면’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서인대사가 출현하여 모친 덕주야 부인을 허망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마지막 대목이다.

일급채 바리덕이 죽어서 샘일고계다 묻어 놓고 샘일제 지내러 올라 가요. 올라 가는데 서인대사 내레 오며 “할머니 어디 가시오?” “일급채 바리덕이 매 지내러 가요.” “할마이 일급채 바리덕이 죽어서 생불이 돼 나 앉아서 할머니 오면 싸

25) 윤준섭, 앞의 논문, 128면.

잡아 먹겠다 함데다.” “대사 그러면 이 쟁계 가지고 온 소물은 다 잡수시오. 말뚝이 구부러도 이승이 제일이지 내 어찌 죽겠소. 대사 그것을 다 잡숫소.” “할마이 우리 절에서 재를 하니 재 귀경 오겠소?” “예!” “윤 돈짓 달 수무 초 하루날에 재를 하는 터이니 오시오.” 그말을 듣고 할머니는 오늘은 아무날 내일은 아무날 하고 윤 돈짓달 수무 초 하루날을 찾아 댕기다가 三年 묵은 보리 그릇기에 업혀져 죽었습니다.(지금섬본)

모친 덕주아 부인은 바리테기에 대한 심정적 부채를 가지고 있다. 서친 서역국행을 거부하고, 죽을병에 걸려 누워 있는 모친한테 모욕을 준 여섯 딸에게 ‘살’을 주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막내딸의 죽음을 불러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덕주아 부인은 막내딸의 망혼을 위로하기 위해 ‘삼일제[三虞祭]’를 지내려고 무덤을 찾아 길을 나선다. 그런데 갑작스레 ‘서인대사[聖人大師, 혹은 스님대사]’가 나타나 거짓 정보를 흘린다. 여기서 갑작스럽다는 것은 서인대사가 서사의 전개과정에서 전혀 단서가 없었던 인물이기 때문이고, 다른 지역 <바리테기> 어디에도 없던 등장인물이기 때문이다. 서인대사는 덕주아 부인에게 막내딸의 원혼이 복수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거짓말을 한다. 그 결과 제물은 서인대사의 몫이 된다.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서인대사는 제물을 빼앗기 위해 덕주아 부인을 속인 것이다. 사기꾼 서인대사의 형상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부정적인 불교 인식이다. 서인대사는 불교의 비윤리성을 드러내기 위해 동원된 캐릭터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서인대사의 거짓말이 한번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서인대사는 ‘윤동짓달 스무 초하룻날의 재’라는 거짓 정보를 재차 발설한다. 이는 무당 지금섬이 ‘윤동짓달 초하루’를 잘못 구연한 것인데 문제는 윤동짓달이 이주 드물게 오는 달이라는 데 있다. ‘윤동짓달 초하룻날 한다’라거나, 돈을 빌려 쓰고 ‘윤동짓달 초하룻날 갚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지 않고, 갚지 않겠다는 말이나 한가지다. 어리석은 바리테기의 모친은 서인대사의 말장난에 속아 오지 않는 날을 고대하며 찾아다니다가 비명횡사한 셈이다.

반불교적인 서인대사의 형상은 <바리테기>에서는 대단히 낮설지만 함흥 지역 무가의 판도에서 보면 오히려 익숙하다. 주지하듯이 함흥에서 조사된 <창세가>(김쌍돌이 구연, 1923)에는 두 명의 창세신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악역을 담당하는 존재가 ‘석가님’이다. 석가님은 불교의 비조인 석가모니에서 비롯된 이름인데 <창세가> 내에서 그의 역할은 사기꾼이다. 그는 창세신 미륵님을 속여 인간세상을 차지하는 신이 된다. 창세신화의 사기꾼 석가님과 정확하게 겹치는 인물이 함흥본 <바리데기>의 서인대사의 형상이다. 이렇게 본다면 함흥 지역 무가는 반불교적인 일관성을 지닌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고분이 구연한 <칠공주>의 경우 모친을 속이는 존재로 서인대사가 아니라 ‘대신(大神)님’이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근거로 종종 서인대사의 형상에서 보이는 반불교적 성격이 함흥본의 일반적 면모가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된다.²⁶⁾ 그러나 이런 반론은 사설의 부정확한 독해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신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는 중의 형상을 포착할 수 없지만 지금섬 본과 다르지 않게 전개되는 사설을 따라가다 보면 “대신이 다 잡숫구서 할 말이 없구 미안하니까. 애구우 우리 아무 때 절에서 재를 하먼 할마니 재 꾸경(求景)오오.”²⁷⁾라는 대목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대신이 ‘우리 절’에서 하는 재 구경을 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대신은 절에 속한 존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고본 본의 대신님은 지금섬 본의 서인대사와 동렬에 놓인 존재이지 비불교적 또는 무속적 존재라고 볼 수 없다.

이처럼 불교 윤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함흥본 <바리데기>의 중반부는 초반부의 문복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는 무의 윤리와 호응 관계를 이루고 있다. 무에 대한 신뢰를 촉구하고 점사(占辭)를 통해 드러나는 신의 명령을 지켜야 조화로운 삶을 이룩할 수 있다는 초반부의 무의 윤리가 서인대사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메시지를 모친 덕주아 부인의 죽음은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함흥본이 말하는 ‘오기탈’이다. 어머니와 일곱 딸 모두의 죽음을 불러온 오기탈로 인해 깨진 세계의 조화를 회복하여 다시 세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행위가 바로 <바리데기>를 부르는 망목굿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다음과 같은 기왕의 견해에 대해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26) 신연우, 앞의 논문, 178면.

27) 金泰坤 編, 『韓國巫歌集 3』, 集文堂, 1978, 149면.

咸南本은 처음부터 滑稽의 人物을 등장시키고 滑稽의 挿話を 挿入시켜서 滑稽美를 具現하고자 한 本이기에 바리공주의 求藥 行爲마저 도둑질로서 나타내어 崇高性を 弱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崇高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滑稽의 으로 처리했기에 마지막에는 너무나 無理가 심한 撞着을 招來하는 것이다. 즉 바리데기는 어머니를 살리고 죽고 만다. 바리데기가 죽을 이유란 하나도 찾을 수 없다. 어머니를 회생시킨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포상도 없이 죽어 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무책임하게 죽게 한 이유는 그 다음에 골계적 이야기를 삽입시키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²⁸⁾

함흥본에 골계적 양상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골계미의 구현’이 함흥본의 미적 구심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모녀 가족의 몰살’이라는 황당한 죽음을 통해 비장미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비장미라고 해야 바리데기의 포상 없는 죽음도 이해가 되고, 바리데기의 죽음 이후 벌어진 모친의 황당한 죽음도 이해가 된다. 겉으로는 골계적일 수 있어도 그것이 감추고 있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오기탈’이다. 실제로 망목곳에서 <바리데기>가 구연되는 장면을 봐도 동해안 별신굿에서 연출되는 골계적 퍼포먼스는 보이지 않는다. 시종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장구 하나에 의지해 무가를 구연하고 있을 뿐이다.²⁹⁾

IV. 무의 윤리의 시각에서 본 함흥본 <바리데기>의 위상

<바리데기> 무가는 일반적으로 북한지역, 동해안·경상도지역, 중서부 지역, 전라도지역으로 무가권이 구획된다.³⁰⁾ 그런데 이들 지역 유형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 중이다. 일찍이 서대석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렇게 진술한 바 있다.

28) 徐大錫, 『韓國巫歌의 研究』, 文學思想社, 1980, 234면.

29) 1981년 12월 서울 봉천동에서 이뤄진 망목곳 영상자료가 현재 국립예술자료원에 소장되어 있고, 이 가운데 지금섬이 구연한 <오기풀이>가 포함되어 있어 연행 상황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윤준섭, 앞의 논문 11면 참조.

30) 김진영·홍태환, 『서사무가 바리공주 전집』, 민속원, 1997.

서울 地域의 바리공주가 神聖性을 그대로 維持한 것은 兩班과 같은 上流層을 對象으로 했기 때문이며 上流層 사람들은 巫歌에서 娛樂性을 찾지 않아도 그들 대로의 娛樂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즉 演藝專門團體가 都市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기에 巫歌를 娛樂의 對象으로 삼지 않아도 그들의 遊興의 慾求는 充足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에 咸境道나 慶北 東海岸 등과 같은 地域에서는 巫歌가 平民을 對象으로 歌唱되었으며, 특히 農漁村의 娛樂施設의 不備는 ‘굿’이 하나의 演藝行事의 機能을 갖도록 만들었다고 본다. 특히 部落共同行事로 준비되는 豐漁굿 등은 이러한 性格이 더욱 濃厚한 것이다. 이리하여 이 지역의 巫歌는 民衆의 要求를 반영하여 滑稽의 으로 발전되고 神聖的 要素는 退色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³¹⁾

요컨대 서울 지역 <바리공주>는 상류층이 대상이어서 송고미를 지향했고, 함경도와 동해안 지역 바리공주는 평민층이 대상이어서 골계미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는 것인데 양자 사이의 선후 관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문맥상 상류층과 달리 평민층은 굿에서 오락을 찾았기 때문에 ‘골계적으로 발전’했다고 했으므로 ‘함경도나 경북 동해안’ 지역의 <바리데기>를 후대에 변형된 유형으로 보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달리 홍태한은 “무가 사설의 특성을 고려해 보건대 전라도 지역의 무가권이 바리공주무가의 기본형으로 보인다. 전라도지역 무가권을 바탕으로 하여서 제의축이 강조된 것이 중서부지역 무가권이고, 놀이축이 강조된 것이 동해안·경상도지역 무가권이다. 북한지역 무가권은 변이형으로 보인다.”³²⁾라고 했고, 북한지역은 “자료가 그렇게 많이 발견되고 있지 않아서 바리공주의 형성과정을 추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형성과정을 추출하기보다는 현재 전승되고 있는 단락을 중심으로 하여서 변이형으로 취급하기로 한다.”³³⁾라고 했다. 전라도 지역 <바리공주>를 기본형으로, 다른 지역 <바리공주>를 확장형으로 설정한 반면 북한지역, 곧 함흥본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 없이 ‘변이형’으로 처리했다. 함흥본을 해석하면서 겪었

31) 서대석, 앞의 책, 251~252면.

32)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형성과 전개』, 『구비문학연구』 제4집, 한국구비문학학회, 1997, 416면.

33) 홍태한, 위의 논문, 426면.

을 곤혹스러움이 이런 ‘취급’의 이면에서 감지된다.

그렇다면 필자가 앞서 시도한, 함흥본에 대한 ‘다른’ 시각의 접근법은 이들 유형들 간의 관계에 대해 어떤 시야를 새롭게 열어줄 수 있을까? 이 물음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할 지점은 무교가 포용성을 기축(基軸)으로 하여 외래종교인 불교, 그리고 유교와 지속적으로 긴장관계를 지니면서 자신의 자리를 모색해왔다는 사실 자체이다. 이런 사실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를 통해, 신라의 경우 ‘유불도 삼교를 포함하여 군생을 접화한다’³⁴⁾는 풍류도에 대한 최치원의 난랑비 서문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필자는 무불의 상호 접화 과정이 8~10세기경에 기록문학의 경우 『김현감호』를 통해, 구전문학의 경우 함흥 김쌍돌이본 <창세가>를 통해 개화(開花)했다는 가설을 제기한 바 있다.³⁵⁾

그런데 <바리테기>에 드러난 삼교의 관계에서 중요한 지점은 무불이다. 유교의 문제는 부차적이다. 유교적 세계관은 아들에 대한 집착과 가부장제의 윤리를 통해 드러나지만 그것은 <바리테기>의 외투다. 왜냐하면 <바리테기>는 효행의 윤리를 말하지만 모성적 효행을 강조하고 있고, 친손봉사로 서사가 시작되지만 외손봉사로 종결되기 때문이다. <바리테기>는 유교 윤리를 겉으로 드러내면서도 그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불교의 경우는 밀착 정도가 상당히 다르다. 무교는 불교의 효 담론을 수용하여 제 것으로 만들었고, 신불(神佛)도 수용하여 제 것으로 만들었다. 그렇다고 완전히 밀착된 것은 아니다.

앞서 분석했듯이 함흥본 <바리테기>에는 무의 윤리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 강력한 무의 윤리, 무의 논리가 파렴치한 서인대사의 형상을 주조했다. 그런데 함흥 지역을 벗어나면 서인대사라는 캐릭터가 사라진다. <바리테기>는 앞서 언급한 바처럼 크게 네 지역의 권역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지만, 무의 윤리라는 시각에서 보면 무의 윤리가 중심이 되어 서사를 이끌어가는 함흥본과 무의 윤리가 불교의 윤리와 일체화되고, 그 위에 유교 윤리의 옷을 걸친 여타 지역본으로 대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4) 國有玄妙之道，曰風流。說教之源，備詳仙史。實乃包含三教，接化群生。…(『鸞郎碑序』)

35) 조현설, 『무불의 접화와 화해의 서사』, 『민족문학사연구』 제50집,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2012.

그렇다면 함흥본은 변이형이 아니라, 골계적으로 발전한 유형이 아니라 무와 불의 갈등이 조정되지 않은 초기형³⁶⁾ <바리데기>가 아닐까? <바리데기>는, 함흥 지역의 경우 그런 내적 동인이 없었겠지만, 망목굿이 궁궐이나 상류층의 의례와 결합하면서, 불교의 승려들이 주관하는 천도재(薦度齋)와 경쟁하면서 단골들의 눈높이에 맞게 서사를 정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바리데기는 바리공주로 우아하게 형상화되었고, 모녀의 덧없는 죽음이라는 비장한 미의식을 버리고 바리공주의 윤리적 실천을 포양하는 숭고한 미의식을 추구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불교의 형상은 탈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V. 맺음말

한국 무속신화를 대표하는 <바리데기>는 무의 윤리를 화두로 삼고 있는 텍스트이다. 그런데 그간 <바리데기>를 바탕으로 무속의 윤리를 다룬 논의들은 <바리데기>의 윤리를 효행으로 단일화하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바리데기>에 표현되어 있는 무의 윤리를 단일하지 않다는 것이 이 논문의 기본 입론이었다. 이런 입장은 두 가지 과녁을 겨냥한다. 하나는 유형간의 차이를 무의 윤리의 구현양상을 통해 재검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바탕으로 유형간의 선후관계를 다시 사유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함흥본 <바리데기>를 이 두 과녁에 이르는 활시위로 삼았다.

함흥본에는 무의 윤리뿐만 아니라 유불의 윤리가 혼효되어 있지만 그 심층에 놓여 있는 것은 무의 윤리이다. 다른 지역의 <바리데기>가 걸으로는

36) 주지하듯이 제주에서는 <바리데기> 무가가 전승되지 않는다. 대신 신궁에서 불리는 <원천강본풀이>가 전승이 단절된 채 채록본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원천강본풀이>에 등장하는 주인공 오늘이가 부모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만나는 길잡이들이 요구하는 ‘주고받기의 형식’이 함흥본 <바리데기>의 그것과 유사하다. 여타 지역의 <바리데기>에서는 길잡이들이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천서역국에서 답을 찾아다 달라고 요청하지 않지만 함흥본만은 그 점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함흥 지역 신화와 제주도 신화의 친연성이 인정되고 있는데 함흥본과 <원천강본풀이>도 그런 예증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동질성도 함흥본이 <바리데기>의 초기 형태라는 점을 말해주는 예증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유교적 윤리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불교적 윤리를 말하고 있다면 함홍본은 표층에서는 유교적 윤리를 드러내지만 심층에서는 무교의 윤리를 강조한다. 함홍본의 바리테기 수왕이의 구약여행을 추동하는 주동인은 무의 점괘이고, 점괘는 신의 명령이므로 이를 따르는 것이 무교가 추구하는 우주와의 조화를 이룩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조화의 윤리는 함홍본의 결말 부분에서 다시 부각된다. 모친 덕주아 부인의 회생 이후 전개되는 결말부에서 어머니와 언니들의 대립은 서로를 부정하는 파국에 도달한다. 그러나 기아에서 비롯된 어머니와 바리테기의 최초의 대립은 바리테기의 구약여행을 통해 화해에 도달한다. 하지만 파국이든 화해든, 결과적으로는 모두 죽음에 도달함으로써, 죽음이야말로 피할 수 없는 존재의 본질임을 드러낸다. 지금섬 본의 표현을 빌면 우리는 모두 ‘오기탈’을 쓴 존재이다. 그래서 열두시왕에게 ‘오기탈을 받고 오기탈을 거두어 달라’고 청하는 의례가 망목굿이고, 이 굿을 통해 무속이 추구하는 조화의 윤리는 회복된다는 인식이 함홍본 <바리테기>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함홍본의 심층에서 작동하고 있는 무의 윤리가 반불교, 반유가적 태도를 추동한다. 그 결과 함홍본은 부정적인 서인대사의 형상을 통해 중생을 호도하는 불교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열녀충신이 나는 것이 오히려 집안에는 좋지 않다는 역설적 언술을 통해 유가 윤리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이런 함홍본의 불교와 유교에 대한 태도는 불교 윤리를 내면화하고, 유교의 윤리를 앞세우는 서울경기본을 비롯한 다른 지역본과 비교하면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는 함홍본의 윤리가 유불의 윤리와 대립 내지 경쟁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뜻하면서 동시에 유불의 윤리와 화해 내지 공존 관계로 이행하기 이전의 양상임을 보여준다. 요컨대 함홍본이 <바리테기> 유형 가운데 초기형이라고 보는 것이다.

<바리테기>는 여전히 문제적인 텍스트이다. <바리테기>의 지역 유형 가운데 함홍본은 일찍이 김태곤에 의해 주목된 바 있으나 그 문제의식이 연구사적으로 계승되지 못하다가 근래에 와서 새롭게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비논리적 서사 구성, 윤리적으로 정련되지 않은 원초적인 인물 형상, 이질적인 세계관, 나아가 전승의 단절 등이 그간 함홍본 연구의 제약 요인으

로 작용했으나 오히려 이런 요인들이 새로운 연구의 촉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리데기> 연구는 함흥본을 좌표로 삼아 다시 시작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 金泰坤, 『黃泉巫歌研究』, 創又社, 1966.
金泰坤 編, 『韓國巫歌集3』, 集文堂, 1978.
徐大錫, 『韓國巫歌의 研究』, 文學思想社, 1980.
任哲宰·張籌根, 『關北地方巫歌』,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 13호, 1965.

2. 단행본

- 김인희, 『韓國巫俗思想研究』, 집문당, 1988.
나카자와 신이치, 김옥희 옮김,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 동아시아, 2004.
도성달, 『윤리학, 그 주제와 논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1.
유동식, 『韓國巫敎의 歷史와 構造』,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9.
이은봉, 『여러 종교에서 보는 죽음관』, 가톨릭출판사, 1995.

3. 논문

- 강봉수, 『제주 무속신화에 나타난 도덕질서-일반신본풀이의 갈등양상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제24집, 제주학회, 2003, 29~83면.
강봉수, 『제주의 의식주생활에 함의된 윤리적 문화문법』, 『윤리연구』 제99집, 한국윤리학회, 2014, 333~365면.
강진옥,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변이양상과 여성적 경험의 재현-동해안 지역 김복순 구연본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9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4, 5~43면.
김덕목, 『실천윤리적 측면에서 분석해 본 무속-황해도굿과 무속공동체를 중심으로』, 『윤리연구』 제94집, 한국윤리학회, 2014, 107~133면.
김봉석, 『바리테기 신화 읽기의 교육과정적 함의: 효(孝)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9권 4호, 한국교육과정학회, 2011, 1~23면.
김화경, 『바리공주 신화의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제46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 119~145면.
서대석, 『바리공주 연구-이본의 특징 분석을 중심으로』, 『계명논총』 제8집, 계명대출판부, 1972, 37~80면.
신연우, 『함흥본 <바리테기>의 죽음의 이해』, 『구비문학연구』 제48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8, 149~184면.

- 신태수, 『<삼공본풀이>에 나타난 무속적 효윤리의 방향』, 『영남학』 제30집, 경북대영남학연구원, 2016, 232~261면.
- 조현설, 『관북지역 본 <바리데기>의 유형적 특이성과 불교의 관계』, 『한국구비문학회 2010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구비문학회, 2010.
- 조현설, 『동아시아 신화에 나타난 여신창조원리의 지속과 그 의미-만주·한국 신화의 비교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31집, 한국구비문학회, 2010, 269~298면.
- 최문기, 『한국 무속신앙의 실천윤리적 조명』, 『윤리연구』 제74집, 한국윤리학회, 2009, 1~33면.
-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형성과 전개』, 『구비문학연구』 제4집, 한국구비문학회, 1997, 393~426면.

The abandoned princess Baridegi and Ethics of Shamanism

Cho, Hyun-soul

Baridegi, which is a representative Korean shamanist myth, is a text focused on the ethics of Shamanism. The ethics of shamanism underlie the Hamheung version of Baridegi. Other versions of Baridegi appear to discuss Confucian ethics on the surface, but carry a subtext of Buddhist ethics. The Hamheung version appears to discuss Confucian ethics on the surface, but carries a subtext of the ethics of shamanism. Baridegi's journey is a way of achieving harmony with the universe, which is the aim of shamanism.

The ethics of shamanism are magnified in the ending part of the Hamheung version. The reborn mother fights with six of her seven daughters. On the other hand, through the final part of the youngest daughter's journey, the conflict between the mother and the youngest daughter is resolved. However, in the end, both cases conclude with the death of all the characters. Death is presented as the essence of every being. Mangmook-gut is the art or ritual of creating harmony between death, or 'ogital' (the sickness of death), and life.

These ethics of shamanism in the Hamheung version of Baridegi result in the creation of an anti-Buddhist and anti-Confucian attitude. The Hamheung version shows an anti-Buddhist attitude through the character of the bad Buddhist monk and displays an anti-Confucian attitude through the paradoxical speech which declares that virtuous women and loyalists are not good for the family. This is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 of the Hamheung. This characteristic makes me believe that the Hamheung version is one of the early versions of the Baridegi myth.

keywords: Baridegi(the abandoned princess), Ethics of Shamanism, Buddhist ethics, Confucian ethics, Hamheung version, Harmony, Ogital(The Sickness Unto Death)

접수일자: 2018. 3. 31.
심사기간: 2018. 4. 1.~2018. 5. 10.
게재결정: 2018. 5. 10.